

(사)한국e-Health 발전협의회 창립

지난 9월 18일(木)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사)한국e-Health발전협의회 창립총회 및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회각계인사, 협회 발기인 및 임원등 여러 초청인사와 국내외 신문방송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본 협회의 자문의원이신 연세대학교 이명호교수가 (사)한국e-Health 발전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사)한국e-Health 발전협의회는 국내 e-Health 구축, e-Health 산업화 및 국제적 일등 상품 개발을 통한 산업발전,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혜택의 확대를 통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산업자원부 지원으로 설립되었다. 앞으로 e-Health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정확히 분석하여 성장 모델, 발전 전략을 제시하여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할 것이며, e-Health 일등상품을 개발하여 우리 상품을 세계적인 일등상품으로 육성 등 국내 e-Health 산업의 사회 발전을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한다.

◇협회 이모저모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이익창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며, 그에 따라 심포지엄과 세미나 등의 학술행사 개최를 비롯하여 원적외선 특별강연 및 자료집, 보고서 발간 등으로 신기술과 정보제공에 앞장서고 있고 원적외선에 대한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체계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

◎ 일본원적외선응용연구회 江川芳信 전무이사는 6월부터 8월까지 3차례 협회를 방문하였다. 6월에는 '제9회 한일원적외선심포지엄' 참석차 방문하였고, 7월에는 6월에 열린 한 일원적외선심포지엄의 평가와 지속적인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방문하였다. 그리고, 8월에는 원적외선관련 실무협약에 대한 사항등을 협의차 방문하여 앞으로도 한 일 양국의 지속적인 원적외선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협의하였다.

◎ 협회는 오는 11월 13일(木) ~ 16일(日)까지 4일간 서울무역전시장에서 「2003 국제 기능성·건강산업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 중국 등 여러 외국

기업들이 참가하는 국제행사로서 이번 행사를 통해 기능성 및 건강 상품과 업체에 다양한 정보와 아이템을 한자리에서 비교·검토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시간적 시너지 효과 및 업체 제품의 직·간접적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번 개최되는 박람회에는 국내·외 많은 기능성 건강 관련업체가 참석할 예정이며, 박람회에 관한 문의사항은 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 협회에서는 회원사와 각종 방송매체 및 회원사의 전시회에 협력하여 원적외선 응용 우수제품에 대한 마케팅 홍보효과를 지원하고 있다.

협회에서는 ㈜알파바이오, ㈜신흥메디칼, ㈜네오벨루스, ㈜한국옥산가제이드 등 회원사들의 기능성 액상 모르타르와 기능성 침구류, 기능성 약세사리, 기능성 의류 등 여러 원적외선 및 음이온 관련 제품들의 TV제품홍보 및 회사소개용 촬영등 방송제작을 위해 원적외선방사량 측정 및 음이온 측정과 적외선 열화상측정, 혈류량 측정, 뇌파측정과정을 생동감있게 실측해 주었다.

◎ 협회는 지난 8월 25일(月)부터 29일(金)까지 5일간 협회 사무실에서 중소기업청의 2003년도 정기감사를 받았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00년도에 이은 정기감사로 협회의 일반현황을 비롯한 예산집행현황 등 총 17항목에 대한 기록을 감사하였다.

5일 동안 이루어진 감사에서 ※총장직원 복명서 미 준수 ※업무 인계, 인수 사항 미 이행에 대한 부분만 주의를 받고 시정명령없이 2003년도 정기감사를 마쳤다.

◎ 협회는 회원사 연회비를 대폭 인하하였다. 3년차 회원사의 연회비는 기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년차는 20만원으로 대폭 낮추었다. 또한, 시험측정비 역시 신규회원사인 경우 20%, 2년차와 3년차인 경우는 3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협회는 그간 회원사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속에서 재정적인 안정을 갖추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회원사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가입의 문턱을 낮추어 다양한 업종과 업체의 가입환경을 조성하고 업체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했으며, 협회는 원적외선 산업계의 구심체가 되어 더욱 위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권익보호와 이익창출에 더욱더 앞장서 나갈 예정이다.